

삼위 일체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TRINITY SUNDAY

주후 2024년 5월 26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8장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통일9)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37 번 삼위일체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사(Isaiah)6:1-8, 요(John) 3:1-8	임경찬 집사
찬 양 Anthem	“참 좋으신 주님”	찬양대
설 교 Sermon	“거듭나지 아니하면” (Unless He Is Born Again)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은혜 아니면”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Closing Hymn	438 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통일495)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삶의 염려로, 기쁨을 상실했고,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영적인 무지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되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롬 5:3-4)

지난 주일(5/19 성령강림주일) 말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 16:4-15, 롬 8:22-27)

흔히들 (구약)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God for Us”하고, (신약)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God with Us”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God in Us”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먼저 달리던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baton을 건네고, 경기를 이어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baton을 건네셨고, (이제) 교회시대로 접어들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 baton을 건네신 셈입니다. “성령강림절(Pentecost)”은 구약시대의 칠칠절/오순절(샤브옷)에 해당되며, (바로) 이 날(칠칠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고, 또한 이 날(성령강림절/오순절)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즉, “우리가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우리에게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를 정리하면.., 1)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2)둘째, 우리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3)셋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며,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In reply Jesus declared, ‘I tell you the truth,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he is born again.’” (John 3:3)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5/26 (주일)	5/27 (월)	5/28 (화)	5/29 (수)	5/30 (목)	5/31 (금)	6/1 (토)
	민36	신1	신2	신3	신4	신5	신6
본문	시80 사28 요이1	시81,82 사29 요삼1	시83,84 사30 유1	시85 사31 계1	시86,87 사32 계2	시88 사33 계3	시89 사34 계4

수/요/ 찬/양/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5/29수 오후7:30)	“손을 내밀라” (마129-21)
토요 새벽기도회 (6/1토 오전6:30)	“변호해주시며,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사140:1-13)

설/교/ 메/모